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통한 환경인식 지형연구

이미경* · 김한배**

*인천발전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담론은 도시를 해석하고, 문제를 타진하며, 해결책을 내리는 일련의 시스템적 구조를 가진다. 도시담론은 공간에 대한 이해, 사람과 공간이 관계 맺고 있는 방식, 우리의 삶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며, 만들어진 공간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논의와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도시담론은 도시환경의 물리적·사회적 쟁점들을 부각시킨다. 이의 해결에 시민집단의 참여로 독려하며 합의 도출을 통한 도시환경의 공동체적 발전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청계천이라는 공간은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05년 공사가 완공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계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도시담론이 형성되었다. 조경, 생태, 도시, 건축, 정치경제, 행정적 관점 등 다양한 시점에서 청계천을 재현해 갔으며, 이 과정 속에서 청계천에 대한 상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해 나갔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정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에 관한 담론내용을 정리, 분석, 해석하였다. 집단 간의 청계천복원에 관한 상이한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 간담론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의 틀을 근거로 하여 담론을 분야별로 유형화시키고 시기별 대립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계천 담론을 매개로 한국 시민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환경인식의 현 지형을 진단하고 도시환경조성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전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6·13 지방선거 당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대두된 2002년 6월에서, 청계천에 관한 담론이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전개된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된 시기인 2005년까지를 주된 분석시기로 설정한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신문에 연재된 칼럼과 사설 그리고 학위논문 및 학술지 및 학회지의 학술논문과 세미나 자료 및 잡

지에 실린 전문가들의 논문과 비평, 논설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청계천에 관한 미래담론을 추출해 보고자 하는 논문의 목적상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원 이후의 내용분석을 필요로 하였다. 2006년 1월에서 2008년 4월까지를 시간적 범위에 포함시키며, 이 시기는 주요 쟁점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학회지의 학술논문과 잡지에 실린 전문가들의 논문과 비평, 논설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분석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의 담론분석이며, 2005년 이후의 자료 분석의 경우는 주된 쟁점과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기 때문에 내용분석과 해석을 충분히 다루지 못함을 밝힌다. '청계천', '청계천 담론', '청계천 복원'이라는 키워드로 주요 신문 및 학회지를 검색하여 담론을 수집한 결과, 총 106개로 청계천복원사업을 공론화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한겨레신문에 실린 칼럼 및 사설과 기사 48편과 대학의 석사학위논문 7편, 대한토목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문화사회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등에 실린 학술논문 26편과 환경과 조경, 미술세계, 인물과 사상, 언론과 사회, 문화과학, 공간SPACE 등의 잡지에 실린 기사 32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수집한 자료를 통해 청계천복원 관련 담론에 관한 환경인식 지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야별 담론분석을 통해 관점별 담론의 주제, 청계천복원을 보는 입장이나 관점, 관심영역 주제에 대해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청계천복원 관련 담론관점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청계천복원에 관한 담론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여, 이념집단 간의 논쟁구조를 살펴보고, 분야별로 담론유형화과정을 통해 한국시민사회의 환경인식지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담론과 담론분석의 이해

1. 텍스트로서 도시와 담론

도시경관의 의미들은 주체들이 특정한 의미구조를 삼입하고 독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도시 건축물이나 길거리, 장식물,

간판,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표현체들 속에서는 만든 이들의 '의도된 의미'와 보는 이들의 '해석된 의미'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복합적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담론이나 상징, 은유 등을 포함한 상상의 환경으로 도시공간을 볼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의미의 퇴적층을 가진 담론이나 상징 따위로 도시의 경관은 형성되기도 한다. 담론은 인간과 경관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교로서 역할을 하며,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텍스트로서 도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도시공간은 담론체로서의 텍스트라 부를 수 있다(D.W Meinig, 1979).

담론의 공간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을 경유해 주체를 세울 때 그 주체는 환상적 주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변동 혹은 문화변동과 관련해서 담론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대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치담론, 정책담론, 사회담론, 문화담론, 미학담론, 미디어담론이라 불리는 사회적으로 순환되는 주장이나 입장 그리고 시각들은 공공적 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해석, 논쟁점을 제공하기도 하며, 특정한 이해관계가 반영되거나 투사된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담론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지식과 상징의 영역을 통한 실천과 현실개입, 그리고 지식생산 자체가 다변화되고 대중화되고 있는 다매체, 탈전통화, 탈장르주의 시대의 특성을 적절하게 포착하는 대표적 단어이기도 하다(이기형, 2006a). 인문학 분야에서의 문화분석 및 도시 및 문화비평 등에서의 담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상적이거나 사적인 수준의 대화에서부터 공적인 성격이 부여되거나 부각되는 정부가 발행한 문서, 법정의 판결문이나 정부의 포고령, 각종 미디어에 실리는 사실, 평론과 기고문,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나 연설문, 의사나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가의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와 형식 그리고 의미화와 권력작용을 발휘하는 담론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담론은 발화되거나 문자화된 형태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각양의 시각적 기호와 이미지들, 이미지와 결합된 음악이나 음성적 효과를 포함하기도 한다. 즉, 담론분석에서 정의하는 담론은 언어적·이야기적이고, 문화적 요소로 구성되며,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나 재현, 주장을 담고 있다(이기형, 2006b).

미셸 푸코(Foucault)는 담론을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생성시킴으로써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들의 응집력 있고 자기지시적인 집합체로 간주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과 제도들은 사회적 체현 세계에 관해 말하는 방식인 담론형식에 의해 구성되고 그 안에 자리 잡는다. 이런 관점

에서 볼 때 담론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하는 수단이다(Edgar, A. and Sedgwick, P., 2003). 페어클라우(Fairclough)에게 있어서 담론은 특정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나 발화 그리고 장르나 제스처 등의 형태를 포함하는 언어학적이고 기호학적인 구성물이다. 페어클라우는 담론이 사회적 실행들과 결합되는 한도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았다. 이정우(2005)는 담론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함축한다고 말한다. 해석학적인 공동체, 정치연설문·웹플랫폼·국회보고서 같은 담론들은 '정치가들'이라는 집단을 함축하며, 담론의 다양성은 사회집단의 다양성을 함축한다. 또, 새로운 담론들의 출현은 새로운 사회집단의 출현을 함축하는 것이다. 담론을 통해서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집단이 특정한 담론을 만들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체적 차원에서의 사회집단들은 담론적 차원에서의 각종 담론과 맞물려 사회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담론은 공공적 소통의 기능을 가지며, 청계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해석,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 또는 견해로 정의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계천에 관한 담론이란 도시의 특성과 주체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전문화된 설명, 표현, 의미, 해석 구성된 지식체계로 간주할 수 있다. 청계천에 대한 일정한 인식, 재현,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미디어에 실린 사실, 칼럼 및 영향력 있는 정치인, 사람 따위의 발언, 연설문, 전문가들의 발언 및 논설문 등으로 정의한다.

2. 담론이론의 유형

미셸 푸코는 담론은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성 아래 형성되는 것으로 권력과 지식이 만나는 지점을 일컬으며, 담론을 매개하고 담아내는 지식의 생산·재생산 관계는 권력의 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담론적 구성체, 의사소통 구조는 주체들의 지식, 말,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면서 구조적인 분할과 차별화의 내부화 과정을 가진다고 본다.

페어클라우는 담론을 담론 의미와 메시지담은 텍스트로 언어학적이고 기호학적인 구성물로 바라본다. 담론자체로서 일종의 사회적 실행의 일부로 작용한다고 보면서 담론은 사회적 실행들과 결합되는 한도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페어클라우는 주로 미디어 담론과 그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담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페어클라우의 담론분석 과정은 묘사(text analysis)와 해석(processing analysis)으로 구분되며, 묘사의 층위에서는 언어적 접근법을 취하고 해석의 경우 미디어 제도 내의 텍스트 생산과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을 논한다. 그는 세 가지 차원의 담론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언어 중심적 담론분석과 사회적 실천의 접합을 시도한다. 텍스

트 중심의 담론분석의 단계,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 분석단계인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의 단계, 해석의 층위의 단계인 실천으로서 담론(discourse as social practice)분석 단계인 세 가지 차원의 담론개념은 담론개념임과 동시에 담론분석 절차가 될 수 있다. 각 차원에서 제시된 담론의 개념에 따라 분석을 마지막 차원에서 이를 연결하여 해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Fairclough, N., 1993). 담론과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담론과 권력 간의 관계뿐 아니라 헤게모니로서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과 헤게모니 투쟁으로서의 권력 관계의 진화적 시각 안에 담론을 위치시키는 것까지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푸코와 페어클라우가 바라보는 담론의 관점을 수용하여 분석의 관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담론은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성 아래 형성된 것으로 의미와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푸코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페어클라우의 담론분석과정을 분석의 틀로서 수용하여 재구성하였다.

3. 한국도시담론의 특징 및 한계

한국의 근대성과 도시성을 연결해 들여다보기 위한 관점에서 도시에 관한 담론은 여러 분야에서 일찍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도시담론의 풍부화는 도시적 문화현상이 깊어지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와 지역공간을 정치경제학적으로 해석한 공간정치경제학 관점의 담론, 시장주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도시공간가치의 공공성보다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는 제도권 도시정책 담론, 운동으로서의 도시담론, 도시의 문화적 구성을 각별히 주목하며 장소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문화적 문맥을 읽는 입장을 가지는 문화과학적 도시담론, 인간과 건축공간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구체적이면서 형태미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건축적 도시담론을 바탕으로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을 정립한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담론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사회관계의 구조적 반영, 지적·이념적·담론적·상징적 반영으로 생산되고 축적되었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담론은 그 물적인 토대가 정부와 같은 권력층과, 자본가층, 중산층적 정서와 지향성 바탕으로 도시이념이 설정되고 있으며, 그 이념 하에서 도시 관련 연구기관, 정책기관들이 각종 정책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가운데 도시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생산되고 유포된다. 구체적인 도시담론의 형성과 확산은 각종의 개념과 이론들을 구성해내는 정부 산하의 도시 관련 학술단체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시연구에 관한 지배담론의 전반적인 특징은 도시를 전향함에 있어서 도시를 생산·축적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도시적 실천에서는 도시의 생산성, 중산층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식과 전략을 선호한다. 시민계층, 노동자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장하는 가치나, 비제도권기관이나 시

민단체, 그리고 비판적인 연구자 집단들이 연대를 통해 생성해내는 각종 학술적 연구와 실천들은 대항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한국도시를 지배하는 담론과는 다른 입장에 서는 대안담론이나 대항담론을 주장하는 논자, 질충안을 제시하는 논자들은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견해를 생성해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배담론에 의해 우리의 도시공간이나 지식체계 구조는 지배를 받고 있으며 급진적인 견해를 가지는 담론의 경우 지배담론과 경쟁, 배척, 적대관계를 낳는 비극적인 조건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실증주의적, 기능주의적인 담론이 팽배하고 있는 우리 도시의 현실적 상황에서 우리는 비판적 관점과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안담론이나 질충적 입장을 가지는 담론의 생성이 필요하다.

III. 청계천복원 담론분석의 틀

1. 청계천복원관련 집단별 담론

청계천 복원사업을 둘러싼 말들은 끊임없이 생성되었으며, 발굴 초기부터 문제시 되었던 유물, 유적들의 처리문제, 생태적인 도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공사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등 문화적, 생태적 측면에서의 복원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 대두되었다. 현재까지 청계천 복원에 관해 바라보는 관점으로 정리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역사학계와 문화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조선시대의 원형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문화재 원형주의적 관점으로 문화재청과 문화연대 및 시민단체, 역사학계 및 문화운동가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광고와 수표교의 복원문제다. 둘째, 생태론자들의 의견으로 현재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자연하천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생태주의적 관점이다. 생태주의적 관점은 생물학을 비롯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선수로가 아닌 곡선수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셋째, 앞의 비판적 입장과는 다르게 일단 청계고가를 뜯고 청계천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1차적 의의가 크다는 견해들을 내세우는 현실론적 관점이다. 이들은 청계고가를 해체하고 물을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며 지나친 전문가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입장이다. 넷째, 삶의 질의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 이후 시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논의 부족과 교통 불편에 따른 대책, 경제적 혜택을 받는 계층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2. 담론분석의 틀

푸코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페어클라우의 담론분석과정을 분석의 틀로서 수용하여 재구성하였다. 1차적으

로 텍스트분석단계로써 청계천에 나타난 분야별 담론에 관해 분석한다. 분야별 담론분석을 하기 위해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청계천에 관한 주류담론과 한국도시담론의 유형을 종합하여 5가지의 관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텍스트분석을 실시한다. 도시정책적 담론, 도시환경 및 생태적 담론, 역사문화 및 장소적 담론, 정치 및 경제학적 담론, 학제적 담론 총 다섯 가지로 각 관점별 담론의 주체, 청계천복원에 관해 가지고 있는 입장, 관심영역 주제에 대해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청계천복원 관련 담론관점의 특징을 도출한다.

2차 담론분석 단계는 담론실천분석의 단계로 이념집단 간 논쟁구조를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기별 담론쟁점사항을 파악하기 용이한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와 칼럼 및 사설을 대상으로 2차적 담론실천분석을 실시한다.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되기 전의 준비기 단계로 2003년 이전을 말하며, 청계천복원 공사가 착공되어 완공되기까지의 2004년에서 2005년까지의 시기인 전개기, 마지막으로 2005년 완공된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시점으로 형성기로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생성시기를 나누었다. 각 시기별 담론의 쟁점사항과 대립구도와 담론간의 상호관계성을 도출하며, 이와 함께 앞서 도출된 관점특징에 따라 대립구조를 분석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인식지형의 도출 및 도시환경성의 지속가능한 방향 전망에 대해 도출한다.

IV. 청계천복원 담론의 환경인식지형 분석

1. 청계천복원 담론의 분야별 유형화 및 특징

첫째,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이론을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시장주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도시공간가치의 공공성보다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는 도시정책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세부 관점으로 도시정책적 관점과 도시관리주의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둘째, 도시공간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청계천복원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도시환경 및 생태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청계천복원을 도시공원적, 친수공간 등의 성격으로 바라보는 도시환경적 관점과 생태적 공간으로서 청계천을 바라보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셋째, 청계천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거나 활용하지는 가치관을 가지는 역사문화 및 장소적 관점이다. 이 관점의 세부 관점은 오간수교, 수표교 등의 청계천의 역사유물에 보다 집중하는 역사적 관점과 청계천 주변의 도시맥락, 청계천의 공구상가들, 청계천 주변의 주민 또는 상인들과 같은 인문생태계의 측면에 관심을 두는 장소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넷째,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수단으로 도시공간을 권력 행사의 장으로 이용하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세우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다. 이 관점의 세부 관점은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문화를 경제 또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

하는 문화경제학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다섯째, 청계천에 관한 담론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연구하거나 주장하는 관점인 학제적 관점으로 유형화시켰다. 1차분석 결과 청계천복원관련 분야별 담론의 유형화를 통해서 담론특징을 실용주의, 급진주의, 보존주의, 절충주의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담론생성 집단은 총 5가지로 정리하였다.

청계천에 관한 주된 담론을 생성하는 집단으로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은 국책기관 집단과 진보론적 관점을 가진 집단(정치경제학자,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과 상인층 그리고 시민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문가 집단은 관점별로는 보존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집단과 절충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조경, 지리, 사회, 역사, 도시계획 및 설계, 부동산으로 총 6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보존주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은 조경학의 생태분야, 환경공학, 생태학, 역사학, 사회학 분야의 논자들이 포함된다. 절충주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은 조경학의 도시환경 및 경관분야, 장소 및 문화분야, 역사 및 전통분야로 구분되었으며, 실용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지니는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와 부동산분야와 보존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적 성향을 지니는 사회학, 지리학 분야의 논자들이 포함되었다.

앞서 분야별 담론분석을 통해 담론특징을 도출하였으며,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첫째, 개발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관점을 실용주의라 정의하였고, 환경은 단순히 화상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은 국책기관 집단과 같은 청계천에 관한 주된 담론을 생성하는 집단이 포함된다. 둘째, 급진주의는 정치 및 문화경제학적 관점으로, 청계천 복원이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여긴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시민간의 도시개발정책을 둘러싼 전망과 해석의 담론적 차이를 서로 교류하고 합의하여 정책의 민주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을 가진다. 주로 제도권 학회와 연구기관들이 지향하는 실용주의적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진보론자 집단(정치경제학자, 시민단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보존주의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진정성에 대해 주장하는 집단 즉, 조경, 환경, 생태학 분야에서의 생태적 복원을 주장하는 논자와 역사, 문화, 사회학 분야에서 문화재 원형복원을 주장하는 논자 그리고 조경, 지리, 사회, 역사학 분야의 장소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이 포함된다. 넷째, 절충주의는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청계천을 복원생태학적 관점으로 보는 입장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도시공원이며 도시적 대안공원, 복원이 아닌 문화적으로 개선된 청계천 등으로 정의하면서 21세기의 자연복원에 대한 의미를 재정의하였다. 이 관점의 담론을 생성하는 논자는 전문가집단 중 조경 및 도시설계집단, 사회학, 지리학, 부동산학 등이 해당하며, 이들 집단 간에도 상이한 관점을 보였다.

표 1. 담론유형의 코드화

유형 A	도시정책적 담론	
1. 도시정책적 관점	a. 환경=수단	실용주의
	b. 정체성 고려한 개발론	절충주의
2. 도시관리주의적 관점	a. 개발논리 패러다임의 도시관리론	실용주의
	b.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관리론	보존주의
	c. 갈등관리	실용주의
유형 B	도시환경 및 생태적 담론	
1. 생태적 관점	a. 환경=수단	실용주의
	b. 복원생태학	절충주의
	c. 환경=보존	보존주의
2. 도시환경적 관점	a. 복원생태학	절충주의
유형 C	역사문화 및 장소적 담론	
1. 역사적 관점	a. 문화재원형복원론	보존주의
	b. 역사경관보존론	보존주의
	c. 대안적 역사복원론	절충주의
2. 장소적 관점	a. 장소보존론	보존주의
	b. 장소성 고려한 개발론	절충주의
	c. 상인이익보호론	-
유형 D	정치 및 문화경제학적 담론	
1. 정치 경제학적 관점	a. 정치권력론	급진주의
2. 문화 경제학적 관점	a. 문화정치론	급진주의
	b. 문화경제론	절충주의
유형 E	학제적 담론	
1. 학제적 관점	a. 학제론	절충주의

2. 청계천복원 담론의 환경인식지형 분석결과

유형화시킨 담론들을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담론의 특징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인식지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담론유형에 코드화를 시켰다(표 1 참조). 각 집단들이 어떤 관점으로 청계천을 바라보는지 해석하기 위해 실용주의, 급진주의, 보존주의, 절충주의 4가지 관점과 코드화시킨 담론들을 좌표를 통해 담론지형도를 작성하였다.

청계천복원은 자본주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며, 시민참여가 있을 경우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논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경우에만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는 급진주의와 환경을 수단으로 보는 경제주의적 관점을 지닌 실용주의는 가장 대척점에서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었다. 복원은 찬성하지만, 생태적, 문화적 복원의 수준과 가치에 집중하는 원형복원론을 주장하는 논자들과 실용주의 관점을 지닌 논자들과도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 중 조정 및 도시설계학 쪽에서 주장하는 장소성을 고려한 개발론, 문화 경제적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복원생태학적인 관점의 경우에는 보존주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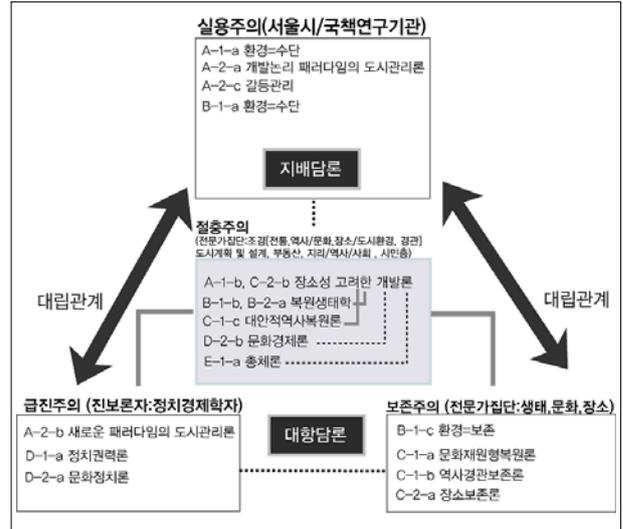


그림 1. 청계천복원관련 담론 분석결과와 다이어그램

범례: ■ 대립관계, ▨ 동조관계, ▩ 상호보완관계

실용주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은 절충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주의적 관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며, 장소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개발을 주장하는 등 경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지배담론을 형성하는 실용주의적 담론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문화, 장소의 원형 복원을 중요시 여기는 보존주의적 관점과 시민참여와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담론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간담론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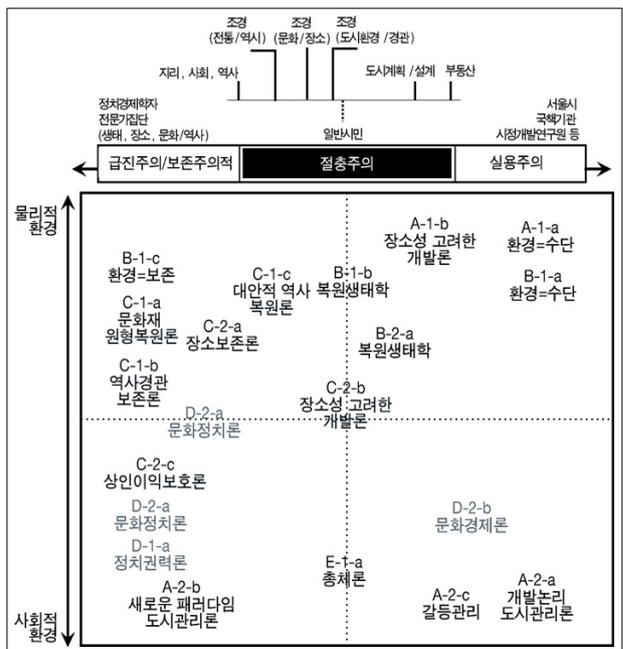


그림 2. 청계천 담론지형도

통해 절충주의 답론은 대립구도, 갈등구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답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과 및 고찰

청계천복원은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부터 완공된 이후까지도 끊임없는 비판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답론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익집단 간 조정의 문제, 분야 간 이념집단 간 의견 수렴의 문제, 성과주의의 전시행정의 문제, 시민참여의 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조정 및 도시환경설계의 역할 증진을 위한 성찰이 요구된다.

청계천복원관련 분야별, 이념별 답론분석을 통해 도시의 공공환경 조성 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계천복원관련 답론을 생성하는 집단 중 생태, 도시환경 및 경관, 장소 및 문화, 역사 및 전통이 포함되는 조정분야는 보존주의, 급진주의, 실용주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대립구도를 완화해 주는 집단이었다. 또한, 현 시대에 맞게 복원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반영하는 것과 도시, 환경, 장소, 지리, 문화 등을 고려하면서 개발론을 주장하는 점에서 가장 가깝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하천복원 및 도시의 공공환경 조성 시 조정분야는 각 집단의 갈등구조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계천복원 추진과정은 서울시와 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 안전, 교통분과, 도시계획,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학계의 참여자와 그 밖의 환경연합, 녹색연합, 문화개혁, 시민연대, 공간문화센터, 도시연대 등의 NGO 단체들이 모여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청계천추진본부 등이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의 과정의 부족으로 분야별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도시하천복원 관련 사업을 추진 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며 추진하는 행정적 절차의 과정이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청계천을 완결된 사업이 아닌 진행형으로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도시와 사람간의 소통을 통해 변화해가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참견하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화된 답론만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배제되는 답론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한 도시답론을 공유하며 의견조율을 통해 도시공간을 형성할 수 있어야겠다.

청계천복원사업은 특히 조정분야가 주가 되어 진행된 사업이었던 만큼 조정분야에 대한 비판적 답론이 많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생태적·문화적 고려 부족, 설계상의 문제, 장애인 및 노약자의 배려 부족, 시설물 위주의 조정 사업, 식재 및 생태설계의 전문성 부족 등의 비판적 수식어는 복원은 좋은 것, 조경은 문화적 조망이 결핍한 가짜 생태를 만드는 기술로서 나쁜

것이라는 복원과 조경의 지나친 대립구도를 설정하게 만들었다. 사실상 청계천 복원은 현대 도시적 상황에서 전 구간의 진정한 생태적, 문화적 복원은 가능하지 않았다. 청계천은 역사적, 생태적인 공간, 도시공원적 성격으로서의 공간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조정분야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조정분야에 대한 일반인과 다른 전문분야에서의 인식은 시각적, 예술적, 상징적, 디자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사람과 문화, 장소에 대한 고려가 사실상 부재했던 조정분야의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용역수행자일 경우, 경제주의적 또는 실용주의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조경학은 환경인식지형에 나타난 급진적 보존주의적인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하고 숙고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계천이 계기가 되어 건축, 조경의 계획이나 설계를 장식적 설계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며, 제대로 된 조경의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는 학계 및 업계 간의 갈등구조와 대립구조 속에서 소통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청계천은 다양한 장소적, 역사적 의미가 지나가는 선형적인 도시공원으로 변모하였다. 1공구의 경우는 도시적이면서 역사적인 성격을, 3공구의 경우는 생태적 복원이 가능할 정도의 자연성을 보유하고 있는 성격의 공간이었으며, 2공구는 도시적이면서 자연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역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과 구간의 특성을 읽지 못하고, 다분히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환경전문가, 건축가들로부터는 엉터리 자연형 하천복원이라는 비평을 받았다. 그러므로 향후 도시하천복원, 도시재생사업 등의 도시환경설계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편일률적인 계획이 아닌 역사·문화적 맥락과 자연적 맥락, 그리고 시대별 가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인용문헌

1. 배정환(2007)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청계천, 공감각의 도시경관, 도서출판 조경.
2. 이기형(2006a) 언론과 사회, 제14권.
3. 이기형(2006b) 답론분석과 답론의 정치학,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 사회 14(3): 106-145.
4. 이정우(2005) 답론의 매혹 주체들의 백가쟁명,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6일.
5. 조경진(2006) 조경 사회 디자인: 문화친화적 조경이 요구된다, 반양장.
6. 조명래(2003) 청계천 복원의 사회학-청계천의 재자연화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7. D. W Meinig(ed.)(1979)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Oxford University Press.
8. Fairclough, N.(1993)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cy Press.
9. Michael Foucault, 정일준(역)(1994)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